



MODERATOR OF THE 2017 GENERAL ASSEMBLY

The Rev. Peter Bush

February 12, 2018

캐나다 장로교회계, 또한 교회로 부터 혹은 교회 안에서 동성애 공포증(homophobia) 이나, 이에 따른 위선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2017 년에 소집된 캐나다 장로교회 총회는 LGBTQI 커뮤니티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회개하는 서신을 전달할 것을 총회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총회는 지난 1994 년에 이미 채택된 인간 성별 보고서(The Human Sexuality Report)를 통해 캐나다 장로교회가 동성애 공포증 및 이에 따른 위선 행위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를 이행하거나 공식으로 사과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2017 년 총회에서는 무지개 커뮤니티(Rainbow Communion)이란 명칭의 청취 위원회(listening committee)를 신설해 LGBTQI 신자가 교회 안에서 겪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고, 늦어도 오는 2020 년까지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본 서신은 1994 년 보고서 채택과 무지개 커뮤니티의 보고 때까지 그 중간에 서 있는 캐나다 장로교회의 입장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교회 역시 서로를 받아들이는 환영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성애자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을 꺼리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위선입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교회는 성적 정체성이나 취향이 다른 사람에겐 위협한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와 개 교회들이 안전하고 환영하는 곳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동성애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은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교회 및 사회가 지닌 제한적인 성에 대한 정의에서 벗어나는 언행을 하는 자녀, 형제나 부모를 비난 혹은 거부해야 한다는 교회의 입장 때문에, 가족들이 갈등을 겪었고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도 이어 집니다. 동성애자와는 친구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제한적 성적 정의로 인해 우리 신자들이 특정인을 판단하고 소외시킨 것에 대해 우리는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한 이유로 핍박을 받아선 안 됩니다. 우리 문화와 사회 안에서 LGBTQI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고, 경우에 따라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과 박해가 교회 안에서, 또는 신자들이 주관하는 커뮤니티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회와 당회도 교회 지도자나 신자가 저지른 증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를 꺼립니다. 우리는 공격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나아가 학대와 증오를 일삼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우리의 지속적 무기력함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교회나 신자들이 정신적이나 신체적 박해에 직접 동참하지 않았어도, 이런 폭력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교회는 “폭력, 태만과 부당함으로 나타나는 악한 사회의 일부”¹ 입니다. 말을 하고 싶은 사람도

¹ 산 믿음 (Living Faith) 2.5.6

자신마저 조소와 폭력의 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침묵 및 침묵을 강요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행동이나 비행동으로, 말로 또는 침묵으로 우리 교회의 일원인 LGBTQI 신자에게 아픔, 두려움과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아픔, 두려움과 불신에 대한 이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외면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의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괴롭힘, 증오와 침묵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자살을 기도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을 그 동안 외면했고, 지금도 이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돌봄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교회 내의 비이성적 두려움은 고군분투하는 인간의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 죄라고 인식되어 온 것을 비난하는 데만 급급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교회는 자주, 쉽게 말을 하는 반면에 귀를 기울이는 데는 약합니다. 더욱이, 특정 성적행위와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면서도 성추행이나 폭력,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선 미온적입니다. 이 같은 위선에 대해 우리는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희망의 복음을 전하기 보다 판단하고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정체성보다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주어진 선물을 외면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 계획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선물을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들이 되기 원하는 우리는 회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환영의 공동체로 향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환영한 것처럼 모든 신자와 신앙의 공동체를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교제를 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식탁을 나누고, 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임으로 신성함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의 서신은 시작도 끝도 아닙니다. 보다 긴 대화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이 대화를 이어갈 의무를 짊어진 무지개 커뮤니티는 LGBTQI 신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에 귀를 기울이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본 회개의 서신에 대해 의견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repentance@presbyterian.ca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The Rev. Peter Bush
Moderator of the 2017 (143rd) General Assembly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